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 (1)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 (2)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 (3)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 (4)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후렴>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 (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 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 (2)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 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 (3)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네게서 이뤄 지리라 참되고 의지 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6월 11일 (화) 기도 담당 : 조병훈 집사

2019년 6월 10일 (월)

이른아침예배

인도 : 김명자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다 같 이
찬 송	80장
기 도	다 같 이
성 경 봉 독	예레미야 3:8-12
찬 양	인 도 자
설 교	『더 중한 책임적 존재』
기 도	김명자 목사
찬 송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축 도	다 같 이
	312장
	다 같 이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3:8-12>

8.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10.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11.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12. 너는 가서 복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6월 10일 (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응답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패망한 이스라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스라엘보다 더한 반역을 행하는 유다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책망에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책망 속에 담겨진 택한 백성을 향하신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을 유혹하는 모든 악한 것들에서 떠나 더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성도들의 지극한 정성과 헌신으로 지어진 새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길 원합니다. 새문안에 속한 모든 권속이 영육간 평안을 공급받는 안식처가 되게 하옵소서. 이곳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개, 보수해야 할 많은 사안들, 헌당하기까지 필요한 모든 과제들, 지금까지 그러하셨듯이 끝까지 간섭하셔서 순차적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맡기신 목회적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모든 부교역자들과 선교사님들도 소명을 따라 충성되이 목회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을 지혜롭게 하시어 교회의 모든 현안들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풀어가게 하옵소서. 새문안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학교를 부흥케 하시며, 청년들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믿음을 주옵시며, 연로하신 어른들의 노후가 복되게 하옵소서. 중한 병으로 혹은 각종 삶의 곤고함에 지쳐 있는 믿음의 권속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아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각종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택한 백성들의 전 삶에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조국의 현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두들 자신들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오히려 혼란과 분열을 가중할 뿐인 현실입니다. 분단된 조국의 현실이 열강들의 이권다툼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택함 받은 성도들이 책임적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간절하게 구하옵나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만민이 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